



KINU 정책제안서 12-08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정책제안서(12-08)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기획·디자인 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3(직통)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통일연구원, 2012

비매품

정책제안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연구책임자: 배정호(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공동연구자: 전성훈(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기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수(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주용식(중앙대학교 부교수)

구재희(SAIS, John Hopkins University)

Andrew O'Neil(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Bo Kong(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Carla Freeman(SAIS, John Hopkins University)

Christopher M. Clarke(U.S. State Department's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INR))

Fei-Ling Wang(Professor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Minerva
Fellow,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Fu-Kuo Liu(MacArthur Center for Security
Studies, Taiwan'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Linda Jakobson(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Australia)

Michael S. Chase(U.S. Naval War College)

Surjit Mansingh(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Viacheslav Amirov(IMEMO- Russia)

Wonhee Lee(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Yasuhiro Matsuda(University of Tokyo)

Yi Edward Yang(James Madison University)

Yong Tao Gui(Peking University)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배경 및 문제점	1
2. 주요 연구결과	1
3. 정책제언	12
가. 정책제안 1	12
나. 정책제안 2	12
다. 정책제안 3	13
라. 정책제안 4	13
4. 기대효과	14
가. 전환기의 중국에 대한 정확하고도 포괄적 이해에 기여	14
나.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하고도 전략적인 대응 수립에 기여 ...	14
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에 기여	15
참고자료	16

1. 배경 및 문제점

세계가 중국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은 정치적·군사적 성장으로 이어져 세계는 바야흐로 G2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G2 시대 혹은 “Chimerica (China+America)”의 시대는 동북아시아의 전략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전략환경의 변화 및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 관련 중국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며 한반도의 미래 구상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체제 전환과 한·중 전략적 협력,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 전략적 협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중국 종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내의 환경과 대외관계, 주요국의 대중국 정책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종합 연구는 기존의 방식처럼,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국제적으로 신뢰와 명성이 높은 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를 추구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우선 Part I은 중국의 국내정치와 리더십 교체를 다루고 있다.

제1장 “A Chinese Model for National Development”는 중국식 발전 모델의 형성과 특징을 개괄하고 그것이 미래의 국제질서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논의한다. 필자는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중국의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특수성에 주목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근대화의 기간 동안 주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중국의 근대화는 경제적 발전이라기보다는 역사적·정치적 발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민족주의적 이론은 국제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 중심의 민족주의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 즉 중국 민족은 서양의 그것과는 다른 그들만의 발전모델을 창조해 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내부적 정당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 중국의 특수성 혹은 국가 정체성을 투영할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중국식 모델과 함께 중요한 것은 중국 국민들의 강대국 정치에 관한 생각이다. 근래 들어 중국 국민들은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성장을 통하여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런 믿음은 오랫동안 제국을 이루었던 중국의 역사에 의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중국식 모델은 G2체제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베이징 합의라고도 불리는 이 중국식 모델은 워싱턴 합의와는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의 측면에서 완전히 구분된다. 한편으로 그것은 전 세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향후 중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야심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제2장 “Leadership Transition in China: from Strongman Politics to Incremental Institutionalization”은 중국의 최근 리더십 교체과정과 발전을 중심으로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개괄하고 그 함의를 논의한다. 필자는 우선 중국 공산당이 중국 유일의 정당이며 정치권력의 원천임을 지적하고 서구식의 다당제를 도입하여 중국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이것이 공산당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 대응하여 변신을 거듭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도부의 구성은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공식적·비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필자는 오늘날 중국의 엘리트 정치가 과거에 비하여 눈에 띄게 투명해 졌으며 예측가능해 졌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가 미래에 중국 정치의 제도화 심화와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제3장 “Actors and Factors: China’s Challenges in the Crucial Next Five Years”는 가까운 미래의 중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전망이다. 필자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덩샤오핑이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로 중국에게 있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5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시기 동안 중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들은 정치적·제도적 사안에서부터 경제적·사회적·군사적·국제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에서 2013년 안에 결정될 중국의 새로운 지도세력들이 이러한 과제를 떠안으려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자면 이 차세대 지도자들은 덩샤오핑 이후의 전임 지도자들보다도 중국의 개혁을 위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확고한 이익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없어 보인다. 추측하건대, 그들의 노력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개혁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악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긴장 또한 계속 상승하여 불안의 목소리가 주기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며, 대대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제개혁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가끔씩은 터져 나올 테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및 차기 리더십들이 당의 통제권과 특권을 위협하고 확실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개혁에 착수할 것 같지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중국에는 공산당의 통치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은 중국에 있어서 ‘그럭저럭 잘 헤쳐 나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책임 및 법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할 것이고, 투자수출 중심에서 소비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거대 자본의 민영화가 일어날 것이고,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없어 국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중국의 신지도부가 중국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4장은 “China’s Ethnic Minorities and Reform”은 마오 시대 이후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검토한다. 필자는 먼저 마오 시대 이후 경제성장 확장을 위한 분권화 정책과 “단일한 다민족 국가”의 건설이라는 상충하는 듯이 보이는 목표들 간의 긴장이 중국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한편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제발전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찾게 만든 것이 중국의 고도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 공산당은 한족과 56개의 소수민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치행정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소수민족들의 자치권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필자는 향후 중국의 미래가 국가 통합이라는 목표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수민족들의 열망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Part II는 중국의 대외관계와 정책을 다루고 있다.

제5장 “Resisting, Reducing, and Replacing: China’s Strategy and Policy towards the United States”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사상적·전통적 기반과 지난 세기 동안의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검토하고 현재 중국의 세계관과 정책 방향을 분석한다. 필자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불투명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한 중국의 국내정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본적인 대미정책은 명확하다고 단언한다. 중국은 현재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반감과 두려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국의 뿌리 깊은 사상적 배경과 정치체제의 역사적 논리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은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라이벌이 되고 미국의 힘과 리더십에 저항하고(resisting), 그것을 축소시키고(reducing), 중국에는 그것을 대체할(replacing)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벌어지겠지만 점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주변국들과 넓은 의미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이 ‘3R(resisting, reducing, and replacing) 전략’은 국가 간의 협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이 3R 전략의 근원을 진-한 시대의 정치체제에서 찾고 있다. 필자가 진-한 천하체제라고 부르는 이 독특한 시스템은 오늘날 지배적인 서구 혹은 미국의 세계관에 저항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중국의 사상적 무기가 된다. 이 독특한 전통적 사상에 근거하여 오늘날 중국의 대외정책은 새로운 세계 제국의 건설을 통하여 생존과 안보를 이룩하려는 하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에 저항하고 그것을 축소하며 중국적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중·미간의 라이벌 관계가 잘 관리되고 두 강대국 간의 선의의 경쟁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중국 내부의 논리와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중국이 3R 전략을 추구하고 세계질서의 재편을 추구할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중국의 진-한 제국주의는 아주 쉽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나찌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과 그 지역을 대재앙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필자는 경고하고 있다.

제6장 “China’s Japan Policy: Managing Islands Disputes in a Transitional Era”는 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을 검토하고 중국의 대일본 정책을 포함한 지역정책을 논의한다. 먼저 필자는 중·일관계가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양국의 국내정치와 전략환경의 변화가 양국 간의 관계에 심대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보듯이, 양국

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의 강한 압박 속에서 그 문제를 국익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더욱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일본은 다오위다오/센카쿠 분쟁을 그 분쟁 자체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평화헌법의 제한을 깨고 일본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역내에서 중국과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일본 내의 떠오르는 우익 세력들, 일부 언론의 중국에 대한 왜곡된 보도들, 그리고 민족주의적 경향에 우려를 갖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이 그들의 목적, 즉 아시아 지역에서의 재균형 전략과 ‘중국 위협’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중·일간의 영토분쟁을 이용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일본과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합리적으로 정책에 담아낼 것과 동시에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한다.

제7장 “China’s Dilemma and I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n the Kim Jung-Un Era: Facing an Uneasy North Korea and Maintaining the Status Quo”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다룬다. 본 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진행시켜 왔는지에 대한 분석임과 동시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 필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규정한다.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부인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북한은 체제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군사적 모험 전략을 통한 현상 타파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상 타파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주변국들의 군사력 제고 및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를 강화시켜 결국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로 확대되었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행을 저지하자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힘들고 강한 제재 역시 잘못하면 북한의 불안정(탈북사태, 체제붕괴) 및 돌출 행동(전쟁 확산)을 야기할 수 있어 중국의 경제발전 악화 및 주변부의 불안정 등 중국의 현상유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줄곧 현상유지와 균형전략을 사용해왔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무력방식보다는 평화와 대화의 방식을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문

제로 인해 미국에 의한 한반도 개입이나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가치를 활용하는 행보도 보여 왔다. 특히 미·중관계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면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현상유지와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전략의 패턴을 보았을 때, 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적 이해 구도에 큰 변화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중국의 정책 역시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다만,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중국 내에서도 북한이 전략적 부담이라는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여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상황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내정간섭을 극도로 경계해 왔고, 안보딜레마와 김정은 권력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략카드인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 역시도 현재의 불안정한 시국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권의 안착을 위해 중국의 지원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일정정도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제스처를 보일 수 있다. - 아마도 아버지 김정일이 실험해 본 북한식 개혁·개방 노선의 형태 -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국 간 이해와 인식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선택 역시 기존의 쳇바퀴를 돌리는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제8장 “The Uneasiness of Big Brother-Little Brother Relationship: China’s Relations with Neighboring Vietnam, Laos, Cambodia, Mongolia, and Myanmar”는 중국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고, 미얀마 등 주변국들에 대한 정책을 검토한다. 필자는 중국이 이들 국가들에서 경제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힘의 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등 다른 우방국들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주장한다.

제9장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hina’s Strategy”는 북핵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관심사항은 첫째, 안정, 둘째가 분단 유지, 그리고 셋째가 북핵폐기로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

한다.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에 걸맞게 외교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여 왔으며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인 6자회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또한 소위 G2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이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얻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정서와 요구를 정확히 읽고 여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국제사회의 대책없는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을 맹방이란 이유만으로 감싸는 행태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가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또한 국제사회 역시 중국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 정권에 대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며,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이 보다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북·중관계의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정책을 취하는 것만이 북한 정권의 핵 야심을 꺾을 수 있는 지름길이며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건설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10장 “One Strategy, Three Pillars: China’s Attempt to Secure Energy Resources”는 최근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검토한다. 본 장에서 필자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급등으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일찍이 해외로 눈을 돌렸음을 먼저 지적한다.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평균에 비해 낮지만 그것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의 3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 빠르게 해외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속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에너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더 공격적인 해외 에너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런 대전략 아래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은 세 개의 큰 기둥을 중심으로 아주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국영 에너지회사, 국영 금융회사, 그리고 중국 정부이다. ‘해외진출 전략’을 시작한 이후로 이 세 중심 기관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는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 외교, 에너지 국영기업의 공격적인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국영 금융

회사들의 에너지 파이낸싱이 중국의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중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Part III은 주요국들의 대중국 정책 및 전략을 다룬다.

제11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과 미국이 당면한 과제를 논의한다. 본 장에서 필자는 우선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에 대하여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필자는 미국이 전에 없이 강하고 유능해진 중국의 성장하는 힘을 아시아 태평양 혹은 그 너머의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성장하는 군사력, 낮은 투명성,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자기주장과 같은 특성들이 합쳐져 중국의 장기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더 넓은 의미의 ‘균형(rebalancing)’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친 오바마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한 미국의 폭넓은 전략적 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이 쇠퇴할지도 모른다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균형(rebalancing)’ 전략에 관해 이해될만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미국의 이러한 접근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외교적 경제적 계획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에게 미국이 중국의 열강으로서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늦추려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오바마 정부는 아태지역의 각종 다자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와 같은 미국의 오래된 우방들과의 결속을 다져왔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우호를 강화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에게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환영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의도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점이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제12장 “Understanding Japan’s Strategy toward China”는 일본의 대중국 정책의 큰 그림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먼저 필자는 일본에 있어서 대중국

정책은 항상 큰 숙제였음을 지적한다. 1980년대에 일본은 엄청난 양의 재정적 지원을 쏟아 붓고 소련과 거리를 둔 채 중국 내부에 시장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과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협력하는 등 대중국 관여 정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1989년의 천안문 사태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특히 1995~96년 양안 관계의 위기 이후 ‘중국 위협’론은 일본 내에서 큰 지지를 얻었고 그에 따라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관여뿐만 아니라 견제 전략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일본의 대중국 관여 정책은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이 양국에 공히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의 대중국 전략은 “공통의 전략적 이해에 근거한 상호 이익 관계”를 건설한다는 합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는 첫째, 상호 정치적 신뢰의 증진, 둘째, 인적·문화적 교류의 증진, 셋째, 상호협력의 강화, 넷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여, 그리고 다섯째, 세계 문제에서의 기여 등을 포함한다. 일본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하여 ‘부드러운 균형(soft balancing)’ 혹은 탄력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태를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있어 가장 훌륭한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고도 성장 과정을 완성했을 때를 대비하여 그들을 위한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필자는 조언한다.

제13장 “Russia’s Policy toward China”는 러시아의 대중국 정책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중·러 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중·러 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상하이 5그룹’은 ‘상하이 협력기구’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는 그 동반자가 어느 나라인지 또는 양국 관계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러-중의 정치적 대화는 실제로 그동안 상당히 강화됐고 양국은 많은 국제 이슈에 대한 공조를 취하고 있다. 러-중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두 번째 요인은 이른바 중국의 부상, 즉 중국이 GDP 규모면에서 세계 2위의 지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로 인해 중국의 군사 잠재력과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러시아에게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러시아의 ‘동진’정책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현재 태평양 지역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

해서는 중국과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직 심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수십 년 전 누리던 ‘형’의 지위를 잃고 중국보다 경제력 면에서 상당히 뒤쳐진 현재의 역전된 관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필자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즉 관여와 견제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한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에 대해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국익 확보를 놓치지 않는 주의 깊은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제14장 “Australia’s Strategy toward China”는 호주의 대 중국 전략을 다루고 있다. 본 장에서 필자는 중-호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특히 미래에 호주의 대 중국 정책은 관여와 견제 정책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호주 정부는 무역, 상업, 자원, 교육, 관광, 문화, 과학 및 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양국 간 민간 수준의 교류 또한 증진시킬 예정이다. 호주 국방부 역시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 등의 공동 작업, 양국 합정간 상호 방문, 전략상 이슈에 관한 장성급 교류 등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호주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견제 전략도 함께 취해 나갈 것이다. 호주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거부할 것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우방으로 지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차기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 내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전략상의 신뢰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현재 양국의 정치적 유대는 경제적 유대, 혹은 심지어 군사적 유대보다도 약한 상태인 바, 고위급 회담으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양국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회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제15장 “Taiwan’s Strategy toward China”는 양안관계를 다루고 있다. 본 장에서 필자는 먼저 전통적으로 적대적 관계였던 양안관계가 최근 들어 평화적 관계로 전환될 희망이 엿보인다고 지적한다. 2009년 이후 중국과 대만,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변화된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이 지역에서의 협력과 경쟁의 양면적 경향을 조장하고 있다. 강대국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의미에

서의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수준에서 영토분쟁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중국과 대만간의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2008년 이후의 양안 간 관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마잉주 대통령은 실용적 접근법을 취하기로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감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 정책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 대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용주의의 바탕 위에서 대만과 중국은 2008년에 정기 회담을 재개하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필자는 대만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 전략의 핵심은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데 달려 있다고 충고한다.

제16장 “India’s Strategy toward China”는 인도의 대중국 전략을 다루고 있다. 본 장에서 필자는 인도의 대중국 정책은 1940년대 이후 일관된 경향을 보여 왔는데 그것은 바로 협력적인 친선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기초는 양국 간 이익이 상충할 때조차도 대체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1962년의 국경 분쟁을 제외하고 양국은 갈등을 자제하고 다자회담 혹은 때로는 양자 협력의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이루어 왔다. 중국과 인도가 각각의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충돌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인도-미국 동맹에 의해서 포위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오랜 군사협력 관계를 우려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양국 간 안정적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인도의 대 중국 정책은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경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제17장 “China’s Rise and the Korean Peninsula: a Convergence of Interests for South Korea and Australis?”는 한국과 호주 사이에는 향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공통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 양국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제도를 활용할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3. 정책제언

가. 정책제안 1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G2로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뿐만 아니라 신중론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 중국 경제의 발전은 미국의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 1억 5천만 명 정도의 농촌 잉여인구, 악화되고 있는 분배 문제와 빈부격차, 심각한 부패 문제, 내륙과 연안 지역의 발전 격차,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이나 성장의 둔화 또는 침체나 하는 기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생존, 중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 등과는 물론 중국의 국력과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볼 때, 현재 중국은 전반적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력과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자제하고 냉정한 전략적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책제안 2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세력균형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미·중간의 상호 견제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즉, 미·중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한 협력관계를 외형상으로 나타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 견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간의 협력과 견제 그리고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투영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동북아 전략 및 대중국 외교정책도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책제안 3

한국은 대중국 외교정책을 수립·전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는 물론 제5세대 지도부의 권력 특성에 관해서 전략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제5세대 지도부의 권력 특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5세대 지도부는 개인이 아닌 각 계파의 권력 승계에 의해 이루어진 1인 우위의 집단지도체제이다. 따라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된다하더라도 대외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둘째, 제5세대 지도부의 정치적 안정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중국 지도부는 국내외의 안정적 환경을 중시할 것이며, 주변 국제환경인 한반도의 안정을 원할 것이다.

셋째, 중국 국력의 신장에 따라 제5세대 지도부는 도광양회의 수준을 넘어 갈등과 대립 상황을 피하지 않는 유소작위(有所作爲)적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핵심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투이불파(鬪而不破)도 불사할 것이다. 즉,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에는 강대국에 대한 열망과 중화민족주의가 투영될 것이다.

라. 정책제안 4

한국의 대중국 외교전략의 기초는 중국의 국력 증강, 미중의 상호 견제와 협력, 강대국 지향의 제5세대 지도부, 중국의 대미견제와 한미동맹의 연계, 중국 국민들의 GDP 성장에 대한 맹신과 그에 따른 정서적 오만, 5억의 네티즌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또, 한국의 대중국 외교전략의 기초는 2,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한·중 경제교역의 규모, 북한문제와 중국의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서, 아직 취약한 한·중의 신뢰관계, 민주화,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 가치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차이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중국 외교전략의 기초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우호협력의 관계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소위 ‘연미화중(聯美和中)’ 외교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편익’에 관한 설득외교를 중국 정부는 물론, 중국의 언론계·학계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며, 5억의 네티즌을 향해서도 하여야 할 것이다. 북

한의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중국의 부담과 고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중국 공공외교를 강화하면서,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인적·정책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구하고, 한·중 양국관계의 신뢰도 증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파워의 변혁기에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이 매우 악화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오히려 한국은 한국의 국력 성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증대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사고와 함께 대중 전략외교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가. 전환기의 중국에 대한 정확하고도 포괄적 이해에 기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전망의 가능성은 중국인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계산하면 훨씬 높아진다. 그러나 중국은 임금상승에 따른 저임금에 의존한 산업의 한계, 국영 및 민영 기업들의 과다 투자와 그에 따른 대출 자금의 회수난 가중 및 금융 부실 등이 향후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울러 사회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상황에서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약 1억 5천만 정도의 농촌 잉여인구, 악화되고 있는 분배 문제와 빈부격차, 심각한 부패 문제, 내륙과 연안 지역의 발전 격차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도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리더십의 교체에 따라 새로운 제5세대 지도부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과 관련, 정책 수립에는 무엇보다도 전환기의 중국에 대한 정확하고도 포괄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환기의 중국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매우 유효하게 기여할 것이다.

나.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하고도 전략적인 대응 수립에 기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 그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이 매우 악화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데, 글로벌 파워

변혁기의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견제와 협력이므로, 오히려 한국의 국력 성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증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의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에 기여

중국의 국내정치와 리더십 교체 및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 중국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정책 및 대외관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정책 등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에 매우 유효하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뿐 아니라, 미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정책연구도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에 매우 유효하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백우열. “제 5세대 지도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2012.9.18.

황재호.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평가.” 통일연구원 정책자문회의, 2012.9.21.

Jang, Yun Mi. “Discourse Analysis of the Chinese Model.” *A Modern Study of China*. Vol. 3, No. 1, 2012.

Jeon, Seon Hong. “The Chinese-style Economic Development and System Transformation: Discourse on the Chinese Model and Its Implications.” *East Asia Briefing*. Vol. 6, No. 1&7, 2011.

Kang, Seon Joo. “A Debate on a New International Order: ‘the Washington Consensus’ vs. ‘the Beijing Consensus.’” *Analysis of Major International Issues*. No. 2009-29, 2009.

Kim, So Jung.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Chinese Nationalism.” *Korea Journal of Northeast Asia*. Vol. 38, 2006.

Bai, Shouyi. *General History of China*. Vol. 5&9. Shanghai: Shanghai People’s Publishing House, 1989-99.

Brz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Chang, Gordon.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2012 Edition.” *Foreign Policy*. December 29,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2/29/the_coming_collapse_of_china_2012_edition?hidecomments=yes>.

Ferguson, Niall. *The Ascent of Money: A Financial History of the World*.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8.

Guo, Changgang. *Ancient Rome*. Shanghai: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Press, 2002.

Hart-Landsberg, Martin and Paul Burkett. *China and Socialism: Market Reforms and Class Struggl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5.

Harvey, David.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Heilmann, Sebastian. “Maximum Tinkering under Uncertainty: Unorthodox Lessons from China?.” *Modern China*. Vol. 35, No. 4, 200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ta Template on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http://www.imf.org/external/np/sta/ir/IRProcessWeb/colist.aspx>>.

- Jacques, Martin.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Rise of the Middle Kingdom an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9.
-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1987.
- Kennedy, Scott. "The Myth of the Beijing Consensu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5, 2010.
- Kuhn, Robert Lawrence. *How China's Leaders Think: The Inside Story of China's 30 Year Reform: How China's Leaders Think and What This means for the Future*. Singapore: John Wiley & Sons (Asia) Pte, Ltd., 2011.
- Kurlantzick, Joshua.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7.
- Li Rex. *A Rising China and Security in East Asia: Identity Construction and Security Discourse*. New York: Routledge, 2009.
- Maddison, Angus.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Paris: OECD Publishing, 1988.
- McDevitt, Michael.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East Asia." PacNet Newsletter, No. 43, 2001.
- Naughton, Barry.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Peerenboom, Randy. *China Modernizes: Threat to the West or Model for the Re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Peng Ming. *The Fourth Monument*. Taipei: Shangzhi Cultural Publishing House, 1999.
- Ramos, Joshua Cooper. *The Beijing Consensus*. The Foreign Policy Center, 2004. <<http://fpc.org.uk/fsblob/244.pdf>>.
- Rebol, Mex. "Why the Beijing Consensus is a Non-Consensu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China-Africa Relations." *Culture Mandala: Bulletin of the Centre for East-West Cultural & Economic Studies*. Vol. 9, issue 1, 2010.
- Ruggie, John.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7, No. 1, 1993.
- Serra, Narcis et al. "Introduction: From the Washington Consensus Towards a New Global Governance." Narcis and Joseph Stiglitz eds. *The Washington Consensus Reconsidered: Towards A New Global Gover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Sheng Liju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ymmetrical Strategic Partners."

- Washington Quarterly*. Vol. 22, No. 3, 1999.
- Studwell, Joe. *The China Dream: The Quest for the Last Great Untapped Market on Earth*.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2002.
- Steinfeld, Edward. *Playing Our Game: Why China's Rise Doesn't Threaten the We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Taagepera, Rein. "Size and Duration of Empires: Growth–Decline Curves, 600 B.C. to 600 A.D." *Social Science History*. Vol. 3, No. 4, 1979.
- Twitchett, Denis and Michael Loew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003html?countryName=World&countryCode=xx®ionCode=oc](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003html?countryName=World&countryCode=xx®ionCode=oc)&#x>.
-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Guidance.pdf>.
- Wang Jis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90, No. 2, March/April 2011.
- Wang Shaoguang. "Adapting by Learning: The Evolution of China's Rural Health Care Financing." *Modern China*. Vol. 35, No. 4, 2009.
- Williamson, John. "A Short History of the Washington Consensus." Serra, Narcis and Joseph Stiglitz eds. *The Washington Consensus Reconsidered: Toward a New Global Gover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Zicheng, Ye. *Inside China's Grand Strategy: The Perspective from the People's Republic*.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2011.
- Yunling, Zhang and Tang Shiping. "China's Regional Strategy."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